

미얀마 Mission Newsletter 김진명 선교사

홍수 속에서의 감사...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 리이다.
(시편 9:1)



밍글라바!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 미얀마에서 평안의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고 했나요? 이곳 미얀마는 아직 우기는 끝나지 않았지만 9월에 들어서면서 간간히 해도 나고, 하루 종일 비가 오지 않을 때도 있어 모처럼 마른 땅을 밟아보고, 햇볕에 빨래도 널어보곤 합니다. 비 온 뒤의 굳은 땅을 기다리며 우기 내내 내린 비가 독을 채우고, 대지 곳곳에 생명의 근원을 만들었을 것을 생각하며 기대와 감사의 마음을 가져 봅니다.

얼마 전 내리는 비처럼 집안이 온통 물에 잠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얀마는 상수도 시설이 되어있지 않아 개인 집마다 물탱크에 물을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느 때 처럼 물 탱크에 물을 받기 위해 전기 스위치를 올려놓고 물이 채워지면 내려야 하는 것을 깜박 잊고는 일을 보러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4시간여 만에 돌아와 집 문을 여는 순간 거실 바닥은 온통 물바다였습니다. 물탱크에서 부터 물이 넘쳐

바닥을 채우고, 부엌을 채우고 거실로 흘러나와 한강이 되어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뛰어들어 물탱크 스위치를 내리고는 다른 전기 스위치들을 살펴 봤는데 냉장고 스위치를 꽂아 둔 Safe Guard 가 찰랑찰랑 물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처음 그 제품을 샀을 때 비닐포장을 뜯지 않고 전기 코드만 꽂아 물이 들어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거실엔 물이 찾지만 안방과 다른 곳에 물이 들어가지 않아 . 모든 게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밤새 물속을 걸으며 물을 치우고 닦아 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저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가운데서도 우리를 굳건히 붙드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저를 비롯해 동역자님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내 집을 채우라...



주인이 종에게 시르되 길과 산술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셔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지난 8월 21일 부터 24일 까지 용두동교회에서 미얀마에 교회
봉헌을 위해 방문해 주셨습니다. 해마다 미얀마에 많은 사역과 헌
신을 감당해 주시는 용두동 교회에서 올해도 툰띠지역에 '엘림선교
원'과 미얀나마 교회에 성전을 건축해 주셨습니다.



툰띠지역은 어린아이들의 교육과 영적 훈련을 감당해줄 선교원
을 놓고 10년을 넘게 기도해 오던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엘림선교
원'에는 17명의 아이들이 매일 모여 공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선교
원을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나마 교회'는 교회가 없어 다른 교회를 빌려 예배 드리며
성도들이 5년을 넘게 간절히 기도하던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순
간이었습니다. 5년 전 교회 없이 쫓겨나 떠돌던 시간을 생각하며
눈물짓던 미얀나마 교회 목사님의 얼굴을 보며 또 한번 하나님의
기적에 감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 교회에서 맘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미얀나마 성도들의 모습이 눈에 그려지는 은혜의 순간이
였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그 동안 건축하여 사역하고 있는 센터들을 방문하여
선물과 기도와 찬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은혜의 일년...



지난 9월 20일자로 양곤 외국어 대학교 미얀마어과 Diplo-
ma 과정 1년을 마쳤습니다. 일년과정의 언어연수 기간을 마치
며 기말고사를 끝으로 2달간의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쉽지 않
은 과정이었지만 모두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세계 어려운 언어에 꼽히는 미얀마어가 하루속히 입에서 자연
스럽게 나올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그 동안 배운 언어들을 방학
동안 보충하고, 훈련하여 한 단계 성장하는 방학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Pray for me



. Victory(승리)

선교지인 미얀마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항상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몸이 아플 때마다 모든 것은 그 수위가 떨어지면서 나약한 상태가 되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매일매일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다시 일어설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Health(건강)

8월과 9월은 질병과의 전투였던 것 같습니다. 6개월 동안 지속되는 우기는 감기몸살과 호흡기 질환을 떨쳐내지 못하게 하고, 음식을 잘못 섭취하는 바람에 몸 속에 있는 모든 수분과 에너지를 쏟아내는 고통스런 긴 시간을 지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정상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힘겨움이 나타날 때마다 낯선 이방인을 밀어내려는 듯한 영적 도전을 느낍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루속히 미얀마의 날씨와 생활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Service(사역)

미얀마 가운데 허락하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지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락하신 센터들의 성장과 지역마다 방해하는 세력을 대하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함께 모여 기도하며 성령의 일하심을 붙들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달라와 툰띠 지역에 있는 모든 센터에서 주일학교와 성경모임을 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많은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론 모든 종교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이 일로 인해 교회에 모였던 아이들이 흩어지는 일이 없도록 동역자님들의 강력한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 Vision(비전)

하나님이 이뤄가실 다음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가를 먼저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뜻이라면 그 일을 위해 뜻을 같이 하는 동역자들과 필요를 돕는 손길을 예비하셔서 그 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 주소
NO34/BD24, Shwe Ong Bin housing, Yankin Township, Yangon, Myanmar H.P : +95-9-425289573
E-Mail : sarahkjm@hanmail.net / Sarahkjm70@gmail.com

김길명 선교사 후원회 “ 선물 ”
담당 : 조용준 김사 (017-701-9141) cyjpd@nate.com
후원계좌 : 인화은행 620-208143-781 김길명
하나은행 608-910135-72707 김길명